

▶ 김제시장의 소회와 포부



“이제, 김제가 미래입니다. 미래를 여는 답은 바로 시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한 민선6기도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러 민선6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전국최초 무소속 3연속 당선이라는 시민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속에서 오늘로 꼭 10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0년은, 김제 백년대계의 기틀을 반석위에 올려놓아 새만금중심도시라는 김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김제미래를 향해 “꿈의 씨앗”을 뿌린 역사적인 날들이었습니다.

변화와 성장으로 가득 채운 지난 10년! 이는 시민 모두의 열정입니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김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창조적 마인드로 고난을 이기며 10년 동안 하루하루를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을 만나 소통했습니다. 시민 한분 한분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고 현장에서 대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의 2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결코 안주하지 않고, 도전과 응전의 자세로 내실과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이제, 김제가 미래입니다. 미래를 여는 답은 바로 시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1,300여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풍운지회(風雲之會) 하듯 험한 비상으로 희망찬 미래 창조를 위해 또 뛰겠습니다.



민선6기 2주년을 맞는 이견식 김제시장은, 2006년 7월 민선4기 취임 이후 지난 10년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실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김제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김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속에서 그 동안 갈고 닦았던 핵심사업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주요사업들 또한 착작 진행되는 등 김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교두보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지성감민(至聖感民)의 시정철학은 이 시장의 몸매 배인 정직과 성실, 창의성과 어우러져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의 삶 속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자세의 감성 리더십을 보여 주었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뜨거운 열정과 힘찬 추진력은 ‘새로운 희망의 땅 새만금중심도시’ · ‘중자산업 거점 농생명 메카 도시’ · ‘지평선산업단지 중심의 신산업도시’ 기반을 구축해 김제 백년대계의 기틀을 반석위에 올려 놓았다.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속 핵심사업들 결실

▲ “新김제 100년” 준비완료, 새만금중심도시·중자생명도시 기반 구축

민선4기부터 현재까지 지난 김제시정 10년을 되돌아보고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단연코 새만금이다. 새만금 2호방조제(9.9km) 구간에 대한 김제 관할권 확보 및 새만금중심도시로서의 성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달려온 집념의 결과이며 한마디로 김제에 있어 새만금은 새로운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패거리 할 수 있었다.

2006년 민선4기 시장취임과 동시 T/F팀을 구성할 만큼 새만금 김제쪽 찾기에 남달랐던 열정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의 새만금 현장점검(2013.4.30.)을 이끌어내 2013.11.14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2015.10.26 중앙분쟁위원회의 새만금2호 방조제 구간을 김제시 관할로 의결하는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8개월만인 지난 6월 10.5km의 해안선을 되찾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로 지적등록을 완료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인 새만금신항만, 동서2축·남북2축도로, 새만금고속도로, 새만금수목원, 새만금국제공항, 대규모 물류단지 등이 진행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새만금중심도시 김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농업의 분고장이란 자존심을 걸고 실험을 기울여 유치(2011년)한 전국 유일의 민간육종연구단지는 ‘금보다 비싼 종자 연구개발과 대한민국의 종자주권 회복에 주도권을 확보하였고, 오는 8월 준공 후 20개 종자기업이 입주함으로써 대한민국 종자생명도시로서 그 위치가 확고해져 민선4기부터 주력한 ‘농업 살리기’의 실현과 함께 농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미래생명과학을 접목한 체험시설을 갖춘 국립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2009년 유치)는 2013년 7월 개원 후 지금까지

새만금 2호방조제구간 김제 관할권 확보

지평선산업단지와 백구농공단지 신산업 도시 인프라 확충 독거노인 생활가정 ‘그룹홈’ 노인복지 모델로 전국에 전파

13만여명의 청소년들이 다녀가는 등 최근 자율화기제 시행으로 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체류형 관광을 주도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 질서는 김제, 지역경제 부흥 위해 획기적 신산업 인프라 확충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깨끗하게 이겨내고 농도에서 신산업도시로의 첫 시도인 298만㎡(90만평) 지평선산업단지(2008~2015)는 단지내 99만㎡(30만평)의 자유무역지역 등 국가사업의 유치로 사업추진이 가속화되어 지난해 준공되었고, 현재 분양률 65%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새만금과 연계한 전략적 투자유치로 활성화되면 2만5천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4조7천억원의 소득창출이 전망된다.

또한, 8월 준공예정인 전국 최초의 특장차전문 백구농공단지(2012~2016)는 17개 기업이 투자 협약하는 등 70% 분양 확정으로, 연말까지 분양완료는 물론 향후 특장차집적화 단지 육성에도 청신호를 보여 지평선산업단지와 함께 신산업 대표 인프라로 투자유치 기반이 서서히 역동적인 모습으로 드러나 지역에 생동감과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 창의적 마인드가 만든 명품 행정, 김제의 위상과 시민 행복지수 향상

한국 농경문화의 진수이며 김제시민의 최고 자랑거리인 김제지평선축제를 전국최초 4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반열에 오르게

하여 ‘지평선’의 전국 브랜드화는 물론 사적 제111호 벽골제를 발굴·복원하여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대표관광지로 육성해 나감으로써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으로 조성된 ‘그룹홈’은 2006년 2개소로 시작되어 현재 171개소를 운영중이며,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 노인복지 모델사업으로 전파시켰고 어르신들과 자녀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

▲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 는 신념과 약속 이행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신념으로 2007년 설립한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전국 지자체 교육정책의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2006년 18억원으로 시작해 시민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기탁으로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 최고액을 기록한 290억원의 김제사랑장학기금은 지역인재 육성의 버팀목이 되어 지금까지 1,500여명에게 20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는 지평선학당은 우수대학 합격률이 계속 증가하고 2014년부터는 지평선학당 출신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환원 활동이 시작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매주 목요일은 다함께 학습하는 날’로 정착시킨 지평선아카데미는 총470명 강사가 다녀가고 16만여명의 수강기록을 세워 시민의 지역평생교육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과 함

께 김제자영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2015.10)시켜 특화산업과 인재양성을 맞춤 연계하는 등 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 “불거리·술거리·즐거거리”가 원비된 문화여가 휴양시설

김제시민의 육체적·정신적 힐링공간인 시민문화체육공원은 국민체육센터, 수변산책로, 자생식물원, 실개천 등 다양한 휴양체육시설과 2013년 개관 이래 240여편의 영화상영과 18만명의 관람객을 모은 국내1호 작은영화관 지평선시네마와 함께 어린이놀이장(7월)과 전용야구장(12월)이 조성되면 가족단위 관광객과 스포츠 마니아들의 문화·여가·스포츠 욕구를 한층 더 충족시켜 줄 것이며 재원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하던 김제문화예술회관을 2006년 취임 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재개하고 2009년 새롭게 개관하여 끊임없는 우수 공연의 기회와 유치로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기관(2011년)과 문화회관 우수기관(2013년)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문화의 거점센터로 탈바꿈시켜 시민문화향유 최고 시설로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있다.

이렇듯 김제역사에 그 어느때보다 내실있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고 있는 김제는, 앞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새만금시대를 맞아 향후 시정 키워드를 ‘내실과 성장’으로 정하고, 시정 전환에 치우침 없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5색(活·農·價·人·通) 전략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즉, 활(活)력 넘치는 도시, 농(農)생명 메카 도시, 가(價)치를 담은 도시, 사람(人)이 희망인 도시, 소통(通)행정 으뜸도시로 성장시키는 기본 전략이다. /김제=곽태 기자

